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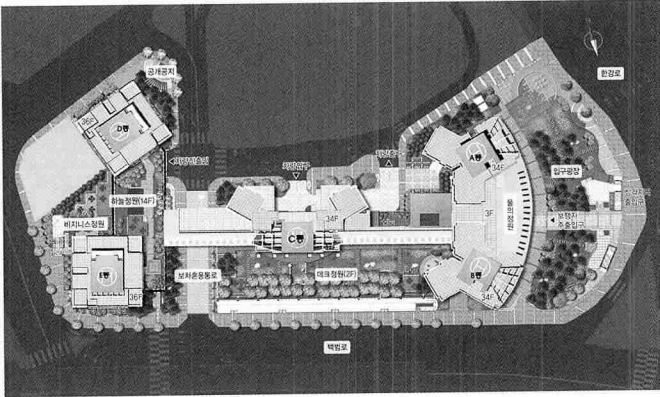
# 용산 파크사이

Yongsan Park X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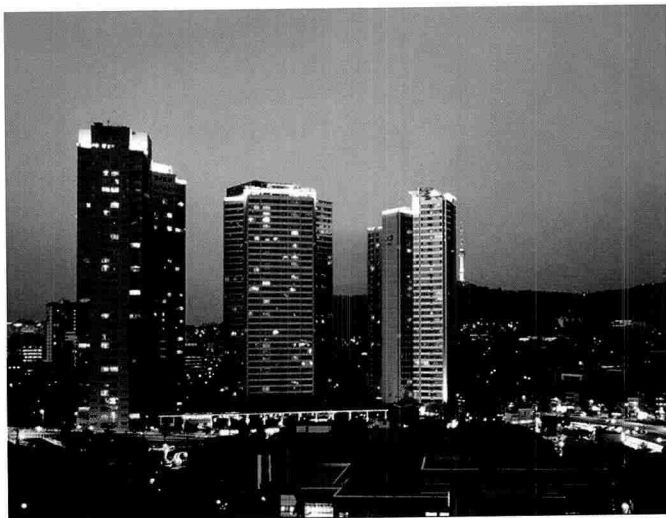
설계자 건축사사무소 우도 | 이원교  
 시공자 지에스건설(주)  
 건축주 (주)모간아담스 코리아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50-1외 16필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심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대지면적 13,505.5m<sup>2</sup>  
 건축면적 7,248.07m<sup>2</sup>  
 연 면 적 149,043.01m<sup>2</sup>  
 건 폐 율 53.67%  
 용 적 률 789.89%  
 규 모 지하 5층, 지상 34~36층  
 구 조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내부마감 WOOD FLOORING, 지정벽지마감  
 외부마감 THK30화강석, 아연도패널, 실리콘페인트, THK22복층유리  
 구조설계 (주)창·민우 구조 컨설턴트  
 설비설계 나우 설비기술(주)  
 전기설계 (주)한양 티이씨  
 설계담당 유기봉, 김영기, 윤정미, 최정수, 임미나, 최용석



Location Yongsan Park Xi, Hangangno1-ga, Yongsan-gu, Seoul, Korea  
 Site area 13,505.5m<sup>2</sup>  
 Bldg area 7,248.07m<sup>2</sup>  
 Gross floor area 149,043.01m<sup>2</sup>  
 Bldg coverage ratio 53.67%  
 Gross floor ratio 789.89%  
 Structure S,R,C  
 Bldg. Scale B5, F34~36

1. 원경 야경  
 2. 한강로에서 바라본 전경



옛글에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라는 말이 있다. 이는 각자의 소임된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전부터 우리의 조상은 수전병을 불인지병(不仁之病)이라 하였다. 손이 해야 할 소임을 제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어질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나의 명제는 '주거는 주거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일차적으

로 밝고, 편안하고, 표정과 이야기가 있는 다정다감한 주거가 되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특히 과밀하고 상업적인 목적이 우선되는 주상복합의 한계 내에서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야 하는 것은 개인의 명제를 넘어 시대적 명제가 될 것이다.

## 밖에서/도시경관

사업지는 삼각지 교차로의 상징적 위치에 놓여 있다. 용산개발의 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새로운 도시경관의 수준에 부응하는 계획안을 제시해야 함과 함께 우리의 기억 속에 잔존되어 있는 '돌아가는 삼각지'의 아스라한 상징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함께 작용하였다. 밖에서 보여 지는 모습은 원경·중경·근경 그리고 야경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원경은 분할 배치된 동간 거리를 최대한 이격하여 시각통로를 확보하였으며, 한강로에서 남산경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전면 셋백하고 공개공지를 배치하였다. 중경은 삼각지 교차로의 상징성이라는 측면에서 두 개의 타워로 상징성을 강화하면서, 입면 및 코너부를 분절하여 휴먼스케일을 보완하였으며, '돌아가는 삼각지'의 부드러움에 맞도록 전면 라운드 처리를 하였다. 근경은 생활과 표정이 있는 거리가 연출될 수 있도록 한강로 변에는 늘푸른 적응으로 교차로 경관을 보완하고, 백범로 변은 테라스가든으로 일상적인 생활의 모습이 가로 표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특히 삼각지 교차로의 야경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 경관조명을 특성있게 연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안에서/거주자경관

계획자가 아닌 실제 거주자에게 있어 주거의 본질은 밝고 쾌적함이 제일이다. 값비싼 재료나 시설수준이 아무리 고급이라 하더라도, 일상 속에서 시야의 답답함이나 그늘진 정원이라면 우리의 일상을 쾌적하게 하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 배치계획의 주안점은 첫째로 양호한 향과 전망을 확보함에 두었다. 가능한 모든 세대가 넓은 시야와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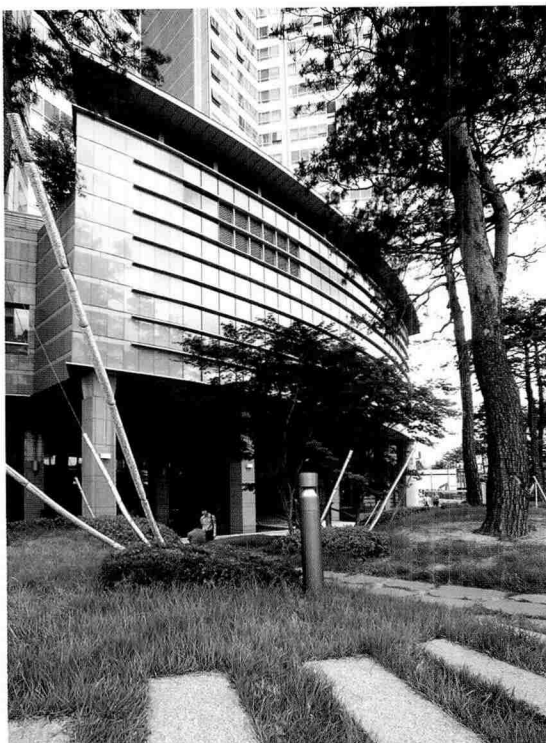
망 그리고 밝은 햇살을 취할 수 있도록 동 배치계획을 수립하였다. 또 하나의 주안점은 개방적이고 그늘이 없는 자연친화적 외부공간의 제공에 역점을 두었다. 도심 주상복합의 외부공간은 때로는 폐쇄적이고 그늘진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의 극복을 위해 외부공간을 건물의 전면에 배치하여 항상 밝은 햇살과 쾌적한 바람과 새소리라는 본연의 모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 밖에서 안으로/단지내 공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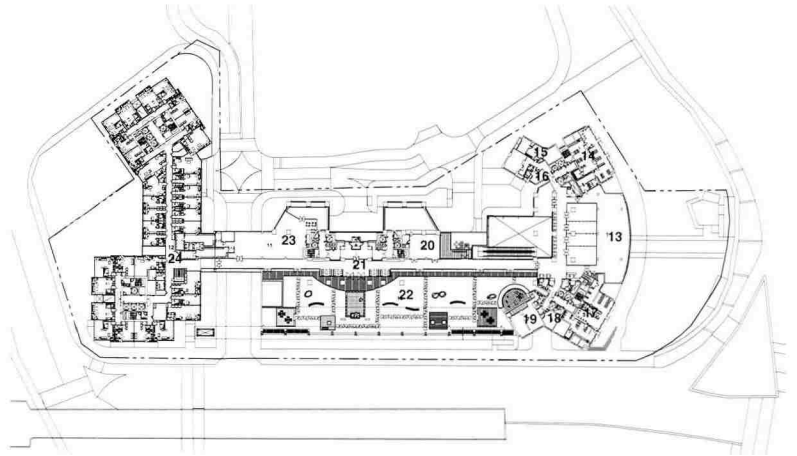
우리의 일상은 나의 집에서 출발하여 우리의 동네를 거쳐 직장이나 학교로 갔다가, 다시 동네를 거쳐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다.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주거란 들어가고 나오는 과정 하나하나가 일상 속에서 소속감있는 의미를 지니고 존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의 동선이 집결되는 '동서횡단의 보행축'을 설정하고, 입구광장~물의 정원~빛의 로비~보행회랑/테크정원~비즈니스로비/비즈니스정원을 연속 배치하여 이야기가 있는 거리가 되도록 하였으며, 이를 거점으로 외부공간/예술작품/주민커뮤니티 공간을 연계 배치하여 자연과 문화와 생활이 일체화된 유기적 네트워크로서의 보행축이 되도록 하였다.

## 단위세대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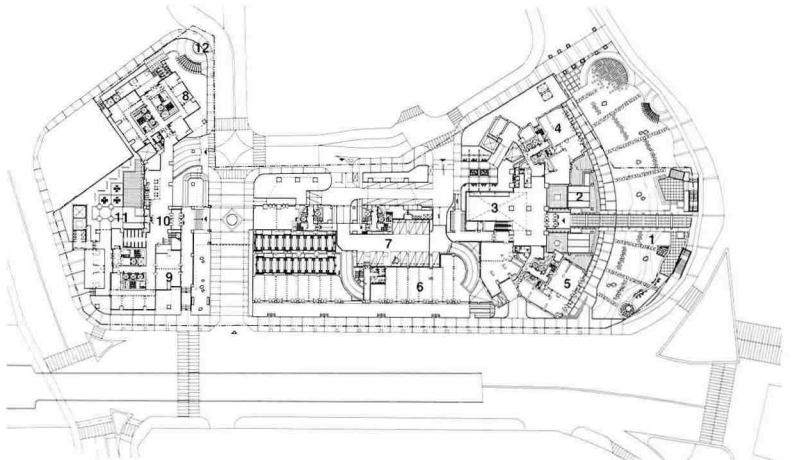
초고층 타워형 평면의 단점을 지양하고, 모든 세대가 가능한 남향을 취하면서 맞풍향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으며, 평형별 특성에 맞는 평면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다양한 입장을 수용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세대별 평면계획을 수립하였다. ㉮



- 01. 입구광장
- 02. 물의 정원
- 03. 빛의 로비
- 04. A동 상가
- 05. B동 상가
- 06. C동 상가
- 07. 주차장
- 08. D동 상가
- 09. E동 상가
- 10. 비즈니스 로비
- 11. 비즈니스 정원
- 12. 공개공지
- 13. 공동주택 휘트니스
- 14. 여자사우나
- 15. 노인정
- 16. 게스트 하우스
- 17. 남자 사우나
- 18. 주민공동시설
- 19. 유치원
- 20. 주민공동시설
- 21. 회랑
- 22. 데크 정원
- 23. 오피스텔 휘트니스
- 24. 오피스텔 객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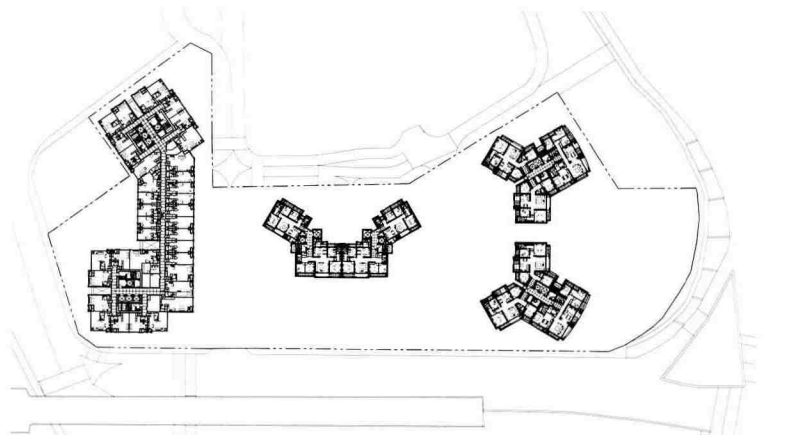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 1. 입구 광장
- 2. 물의 정원
- 3. 빛의 로비



기준층 평면도

0 5 10 20 50m



- |            |           |            |
|------------|-----------|------------|
| 1. 입면도     | 4. 보행화랑   | 7. 강관 조명   |
| 2. 비즈니스 정원 | 5. 백범로 전경 | 8. 보자운동 도로 |
| 3. 데크 정원   | 6. 테라스 가든 | 9. 테라스 가든  |



